

뇌졸중의 원인과 치료

뇌세포 생사 여부 '시간과의 싸움'

어느날 가족 중 한사람이 한쪽 얼굴, 팔, 다리에 멍멍한 느낌이 들거나 저린 느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지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눈이 갑자기 안보이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잘 안된다, 어지러움, 걸음을 걸기가 불편하다, 하나의 물건이 두 개로 보인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증세를 보인다던 여러 분은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답은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에 나열한 증상들은 뇌졸중(중풍)이 발생했을 때 흔히 보는 증상들이다. 뇌세포는 단 몇 분간만 혈액 공급이 안돼도 손상을 입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다.

가정에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구급약이라고 생각하는 약을 먹이는 행동이나 손을 떠는 행동은 삼가야한다. 환자에게 삼부르게 하는 처치는 대개 뇌졸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상주하는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 원인을 밝히고 그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

▷뇌졸중(중풍)이란=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혈액공급이 되지않아 그 부분의 뇌가 손상돼 신경과 비정상성을 일으키는 병.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중 4대 다음으로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 질환이다. 뇌졸중은 크게 분류하면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다. 최근에는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발병률은 여전히 높는데, 특히 뇌경색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피가 뇌에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 그 피가 고여서 뇌손상이 오는 경우다. 그리고 증상이 수습분 가람 있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고 한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므로 일반인들은 이를 무시하기 쉬우며, 또한 이러한 증상들은 고령이나 피로감 때문에 발생했다고 여기고 간과하기 쉬워서 중요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일과성 뇌허혈발작의 경험자 중 1/3에서 뇌경색이 발생하므로 그 임상적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뇌졸중 위험인자=뇌졸중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고혈압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약 4~5배 정도 뇌졸중이 더 잘 발생한다. 고지혈증도 동맥경화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강증진재활센터에서 뇌졸중 환자들이 운동 및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일수록 위험률 높아 맞춤형 재활 치료로 후유 장애 최소화

를 촉진하며,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 흡연자, 심장질환, 특히 판막질환이나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인보다 뇌졸중(중풍) 위험성이 높다.

모든 병원이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누르고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병원으로 옮겨 최대한 빨리 뇌혈액을 해야 한다. 뇌출혈(특히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재활치료=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초기 민첩한 대응으로 생명을 유지시킬 순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후유 장애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10%는 완전히 회복되고, 10%는 장기적으로 요양기관에서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나머지 80%의 경우는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서 뇌졸중으로 인해 생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회 재활프로그램 활용=뇌졸중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환자의 기능 회복과 악화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회 재활 프로그램이다. 교육기관이나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운동 치료나 웃음 치료, 음악치료, 미술 치료, 원예 치료 등의 프로그램 참여도 권장한다.

▷재활치료=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경과 정원희·재활의학과 김지영 전문의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함한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직업재활 등 포괄적인 치료로 이루어진다.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 장애의 재활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뇌졸중 발생 후 신체 기능장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병 부위와 범위다. 따라서 발병 시기와 손상부위를 고려해 환자가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는 장애에 대한 치료를 시기 적절하게 치료해야만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장애를 줄이고, 손상 부분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사회 재활프로그램 활용=뇌졸중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환자의 기능 회복과 악화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회 재활 프로그램이다. 교육기관이나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운동 치료나 웃음 치료, 음악치료, 미술 치료, 원예 치료 등의 프로그램 참여도 권장한다.

▷재활치료=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경과 정원희·재활의학과 김지영 전문의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1등급'

조대병원 전국 유일 전 분야 만점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서 각각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조선대병원은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점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조선대병원은 2009년 시행한 위수술(100점)·담낭절제술(100)·고관절 치환술(100)·슬관절치환술(100)·자궁적출술(100)·제왕절개술(100점)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만점을 얻어 전국 최고 점수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남대병원은 2009년 시행한 위수술(96.7)·대장수술(97.5)·담낭수술(98.4)·심장수술(95.6)·제왕절개술(92.7)·자궁적출술(99.5) 등 6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 평균 점수 96.9점으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또 화순전남대병원도 위수술(99.3)·대장수술(93.8)·담낭수술(99.2)·자궁적출술(100)·무릎관절치환술(100)·영양관찰치환술(100)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98.0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이는 동일종별(상급 종합병원) 평균 70.6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번 발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외과(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수술), 정형외과(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산부인과(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흉부외과(심장수술) 등의 수술을 한 전국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346개소를 대상으로 항생제의 최초 투여시기와 항생제 선택, 투여 기간, 항생제 투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해 1~5등급으로 평가한 것이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의과학전문대학원 몽골서 펼치는 사랑의 의료봉사

몽골서 펼치는 사랑의 의료봉사

전남대 의과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원장 오희균)이 몽골 치과대학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까지 5일간 몽골에서 의료봉사를 벌인다.

전남대 치전원은 학생 20여 명과 임상교수, 총동창회 회원 등 33명으로 '몽골 해외 치과의료봉사단'을 구성해 최근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몽골 울란바토르 보건대(Health Sciences University) 치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언청이(구순구개열) 환자 수술과 일반 진료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양 대학간의 임플란트 워크숍이 열렸으며, 학생들은 몽골 학생들 집에 머물며 문화교류의 시간을 갖고 있다.

오희균 치과의료봉사단장은 "양 대학이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학문과 문화 교류는 물론 서로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몽골에 선진 의료기술 전수 등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대학은 지난 2008년 12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교수와 학생 교류 활동 등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몽골 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두 차례 전남대를 방문해 단기간 연수를 진행했으며 2009년부터는 몽골 교수들이 전남대병원에서 1년간 연수를 받으며 구강암, 악안면기형과 임플란트 수술 등 선진 의술을 전수받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

심·뇌혈관 질환

이것을 알자

조선대병원 흉순표 교수

환자 교육용 지침서 발간



조선대병원 심혈관센터 흉순표 교수가 치료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교육용 책자를(138P) 발간했다.

138쪽에 이르는 이 책은 총 9개 콘텐트로 ▲아스피린과 심장질환, 그리고 뇌졸중 ▲심장과 항혈전응고제 ▲심장발작 후 당신의 심장엔? ▲혈압 조절의 이해 ▲심도자술 ▲심방세동 ▲약물치료 ▲협심증의 이해 ▲심생활과 심장질환 등에 대해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궁금했던 점과 주의사항, 치료 중 지켜야 할 등이 수록돼 있어 실제 환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여수 백병원 일요일 예약진료

어깨통증 전문 치료병원인 여수 백병원이 일요일 예약진료를 통해 고객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16일 여수 백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사임 및 직장 근무 등으로 평일에 진료받기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이달부터 일요일 예약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분야는 어깨관절과 무릎관절이다. 예약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상담은 전화(061-655-3000, 010-6805-3600)로 하면 된다. 이 병원은 이와함께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당직 전문의가 예약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yaluronic Acid' (히알루론산) skin treatment.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woman's face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 treatment, such as skin regeneration and wrinkle improvement.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linic: '검열필성형외과의원' (Jeonnam Plastic Surgery Clinic) at 227-3777.